

익산시 악취 저감 현장행보 '성과'

시료 초과율 전년 23% → 올해 6월 6%... 배출구 복합악취 평균농도 전년 477배 → 올해 6월 204배

익산시가 정현을 익산시장 취임 후 악취문제를 중요과제로 설정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 정책을 꾸준히 펼친 결과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6년도 292건의 시료 중 67건이 초과되어 23% 초과율로 높았으나, 16억을 투입하여 활성탄 교체 등의 시설개선 후인 올해 6월 현재 110건의 시료 중 7건이 초과되어 초과율이 6%로 낮아졌다. 배출구 복합악취 평균농도도 2016년도에는 477배였으나 2017년도 6월 현재는 204배로 전년도 대비 273배 감소되어 50% 이상이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시장은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크기 때문에 시민체감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금년도 악취저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업 악취 저감, 현장에서 답 찾다
익산시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작년 악취시설 점검 및 측정용 법과 원칙에 의해 성실하게 진행한 결과 점검사업장 292개소 중 67개소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고,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총 16억원을 투자하여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개선했다.

올해 여름철 본격적인 악취가 시작

되기 전 시내권과 인접한 산단지역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점검 및 측정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치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없었다. 그러나 2018년 배출허용기준이 750배에서 500배로 강화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16개소에서 50억원을 투자해 악취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개선 중에 있다. 유스켄(주) 등 7개소는 개선 전에 악취배출허용기준 배출구 복합악취 750배를 초과했으나, 개선 후에는 100~300배 이내로 저감되었다. 또한 공사 중인 (주)LG화학 등 6개소는 50%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3개소는 설계 중에 있어 이달 중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정현을 시장 현장행정으로 시민 공감과 이해 높여

정현을 시장은 지난 5일 오후 악취민관협의위원 및 악취모니터요원과 함께 올해 50억원을 투입하여 악취 방지시설 등을 개선하는 16개 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을 현장점검 했다.

시는 기존 냄새 유무를 기재하는 수준에 그쳤던 악취모니터요원 활동을 작년부터 악취순찰과 점검으로 확대해 악취 냄새구분과 인식전환을 유도했다. 올해는 기존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악취에 대한 시민들의 바른 이해를 확산시켰다.

여름철 취약시기인 5월에서 10월에



익산시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운영되는 악취 민원 야간 상황실을 단순히 민원 접수 뿐 아니라 민원접수 즉시 민원현장으로 달려가 악취차동포집기 설치 의사를 묻고 민원인과 함께 악취고통을 공감하고 있다. 특히 시민이 원하면 악취차동포집기를 가정 내 설치해 실제 농도치를 확인해 정확한 악취 문제를 진단한다.

또한 올해 6회에 걸쳐 주민설명회 등 거버넌스 행정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축산·생활 악취 잡는다

익산시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축산악취를 잡기 위해 개방형 축사형태를 밀폐형으로 단계적으로 유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생활악취 저감에도 힘을 쏟는다. 최근 시는 대규모 세탁 시설, 찜질방, 불법소각 등 생활 속에서 악취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현행법 상으로는 생활 악취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욕구가 높아지면서 사업장 관리뿐 아니라, 생활악취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7월부터 시민들과 악취 거버넌스 소통행정을 지속 추진해 '악취 발생 시 환사와 같은 시민행동 요령'을 널리 알려 미세먼지와 각종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시민들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초원 위에 심은 인술의 감동

원광학원 합동 해외의료봉사단, 봉사 활동 마쳐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높고 지평선 너머 푸른 초원은 끝이 없는 청기스칸 후예들의 나라 몽골. 300여만명의 인구가 사는 한반도와 영토 7배가 넘는 몽골이지만 아직 의료 현실은 열악한 나라다.

원광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원광학원 산하기관 합동 해외의료봉사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활한 몽골 땅을 찾아 지난 2일까지 7박 8일간의 봉사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해외의료봉사단(단장 모찬원, 서일영)은 원광대학교병원, 치과대학병원, 한방병원의 의사, 약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해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등 원광학원 내 각 기관에서 총 80명이 참여했다. 특히 몽골 현지에서의 아치의과대학 학생 및 통역 등을 포함하면 약 15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의료 봉사 활동은 펼쳐졌다. /익산=장양원 기자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인근 철도 병원에서 펼쳐진 이번 봉사 활동에는 원광대병원 내과, 안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8개 진료과와 치대병원, 한방병원 의료진이 연 인원 4,700여명을 진료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또한 안경 및 미용 등의 서비스를 원광보건대 및 원광디지털대학에서 제공하여,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진료하고 기쁨을 주려는 봉사자들의 의지가 돋보였다.

의료봉사 활동 현장에는 낙후된 의료 환경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3시간 거리를 비행기로 이송돼 진료를 받는 등 인신인해를 이뤘는데 열악한 생활환경과 음식 문화 탓으로 소아과 구루병 환자 등 80명이 참여했다. 특히 의료봉사 활동에서는 환자 맞춤형 의료봉사 준비를 많이 갖추어 오고 있다"는 소감을 원광대병원 관계자가 전하기도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농업기술센터-익산농협 상호협력·교류강화 협약 체결

익산시농업기술센터와 농협익산시지부는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상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상호협력과 교류강화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앞으로 두 기관은 농업기술정보 공유로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교육 및 새 소득 작물 신기술보급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 농업 및 경축순환 기술 개발, 농기계사업을 통한 농작업 활성화 등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역량과 농협 조직을 활용하게 된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진선섭 소장은 "농업인의 서비스 확대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오석원 지부장은 "맞춤식 영농지도와 농업생산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대민 홈페이지 서비스 ISMS 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

시 홈페이지 등 8가지 부문 좋은 평가... 기간 2020년 6월까지

군산시는 도내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대민 홈페이지 서비스 부문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IT 확산과 패러다임 변화, 사이버 침해 증가에 대비하는 조직 전반의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ISMS 인증은 기관 및 기업이 체계적인 정보보호활동 계획 수립을 통해 정보보호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정보보호 관리과정과 정보보호 대책으로 구성된 104개 인증기준으로 심사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관

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평가·인증제도다.

이번에 시에서 인증을 받은 분야는 대민 홈페이지 서비스분야로 군산시 홈페이지, 경제산업정보시스템, 온라인홍보시스템, 자전자 홈페이지, 군산시 평생학습정보망,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근대역사박물관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 등 총 8가지 서비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간은 2020년 6월까지 3년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정보시스템 취약점 및 위협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지난 2월에는 정보시스템 운영전반 점검 및 각 업무별 담당자 인터뷰, 현장실사

를 통한 심사를 받고 결함사항 등에 대한 보완 및 대책을 수립한 결과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받은 인증이다.

한편 한대천 정보통신담당관은 "이번 ISMS 인증을 통해 대민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군산시의 노력이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인정받았다는 점에 자부심이 깊다"며, "앞으로도 인증기준에 따른 관리와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이버 침해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 행복학습센터, 상반기 성료

고군산군도 오염사고 특별관리

군산시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이 시민들의 큰 호응과 관심 속에 상반기 교육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군산시의 찾아가는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 신청을 받아 총 14개소의 행복학습센터에서 교육과정이 실시되었으며, 수송동의 신도심, 월명동의 원도심뿐만 아니라 나포면의 농촌지역 및 오식도동의 산업단지 지역에서도 행복학습센터가 개설 운영되었다.

지역별 상반기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신도심지역에서는 자수공예·캘리그래피 수업 ▲원도심지역에서는 폐품 활용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마을라디오 만들기, ▲농촌지역은 생활체조 과정 ▲산업단지지역에서는 다문화가족 천연화장품 만들기 교육과정이 운영되었다. /군산=장 현 기자

해경이 바다관광 성수기를 맞아 고군산군도 일부 해안지역을 '오염사고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했다.

5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7월과 8월 두 달 간 선유도 해수욕장과 고군산군도 주변 해역을 '해양오염사고 예방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해 집중 예방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군산군도 지역 해양오염사고 11건 가운데 7월과 8월에 발생한 사고가 5건으로 전체의 45%에 해당된다.

또, 해수욕장의 경우에도 개장 기간 동안 해양오염 신고가 집중되는 만큼 사고 예방과 초기대응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이 시간 동안 방제정 순찰활동을 늘리고 소형 방제정 추가 투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장 현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